

수염의 미학

김강석/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

최 근 TV를 보면 방송 리포터나 출연자가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른 것을 보게 된다. — 수염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면 상당부분 불이익이나 잔소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 수염에 대한 고정관념이 건방지다, 지저분하다, 웬지 보기 싫다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장가를 가거나 장년이 되면 모두 수염을 기르고 그 위엄(?)을 자랑했었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는 수염 기르기가 자연스런 개성이 된 반면 우리사회는 도리어 금기가 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 방송기자 가운데 수염을 기르고 화면에 나오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많은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을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신경쓰는 것 같지는 않다.

필자는 재작년과 작년 사이 미국 뉴욕주 스토니 부룩에 있는 뉴욕주립대학에서 연수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몇 개월 수염을 기르는 모반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결국 심한 감기에 걸려 콧수염이 콧구멍을 마구 찌르고 콧물이 수염을 타고 줄줄 흘러 내리는 등의 악조건을 견디다 못해 어렵사리 기른 수염을 단칼에 베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때 수염을 길러본 것이 수염의 세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남모르는 사실을 알게되는 수확(?)도 거두게 됐다고 감히 자부한다.

첫째 수염을 기르는 자들은 매우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매일 가시처럼 뒤죽박죽 돌아나는 수염을 가지런히 자르고 코나 아래턱 등 특정부위를 강조해 수염을 가꾸는 일은 매일

싸그리 면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헤밍웨이나 휘트먼 같은 대문호는 돼야지 털복숭이 같은 수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치를 체득하게 된 것이다.

둘째 수염을 새까맣고 가지런하게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다소곳하고 매력적인 남자임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하루에 두 번씩 면도할 정도로 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수염을 길러보니까 오른쪽 턱 부분 등 수염이 나지 않는 곳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여드름이나 상처 때문에 모근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그런 쪽은 밀어버리고 코밑이나 아래턱 등 집중육성지역을 살려두면 된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의 수염이 길어져 덮어주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히 자랄 때까지는 수염이 뻑뻑하게 난 미국인을 보며 열등의식에 시달려야 했다.

셋째 수염을 달고 다니는 자들은 지독히 지저분하거나 깨끗한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수염을 길러보면 물 마실 때 젖는 것 정도야 별 것 아니지만 수프나 김치국물을 흘리면 냄새가 피죤처럼 짙어지거나 영 개운치가 않다. 이런 일이 잦다보면 귀찮아져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수염에서 나는 냄새는 그로테스크한 게 희안하다. 따라서 수염을 향긋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단히 수염을 씻고 말리고 빗질하는 등 여간 부지런한 이들이 아닌 것이다. 반면 제대로 씻지 않거나 향수도 뿌려주지 않는 사람들의 수염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테러로 수천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지목되는 오사마 빈 라덴의 거나한 수염은 어떤 상태일까 상상에 맡긴다. PPKK